



# 연구접근의 선택

**연구 접근**은 광범위한 가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에 이르는 연구의 절차와 계획을 말한다. 이 계획은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포함하며, 그런 결정은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순서나 여기에서 제안하는 순서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내릴 결정사항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사항이란 연구자가 연구에 사용하게 될 철학적 가설인 (**연구설계**라 불리는) 탐구 절차, 자료를 수집할 특정 **연구방법**, 분석과 해석이다. 또한 연구접근을 선택할 때 다루는 **연구문제**나 이슈의 성격,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연구물의 독자도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연구접근', '연구설계', '연구방법'의 세 용어가 핵심인데, 이들은 연구의 광범위한 구성부터 방법의 절차에 이르는 연속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연구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의 세 가지 접근

이 책에서는 (1) 질적 방법, (2) 양적 방법, (3) 혼합 방법의 세 가지 연구접근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접근은 처음 보는 것처럼 별개로 분리되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엄격하고 구별되는 범주, 정반대의 접근으로 보거나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 접근은 하나의 연속체 위에서 양쪽 끝에 위치해 있다(Newman & Benz, 1998). 하나의 연구는 양적이기보다 질적일 수 있고, 그 반대로 질적이기보다는 양적일 수 있다. **혼합 연구**는 이 연속체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왜냐하면 이 방법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모든 요소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구별은 숫자(양적)보다는 어휘(질적)를 사용하여 구성

#### 4 제1부 예비적 고려사항

하는지 또는 개방형 질문(질적 면접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양적 가설)을 사용하여 구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방법 간 차이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이용하는 기본 철학적 가정,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전략의 유형(예 : 양적 실험이나 질적 사례연구),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이용하는 특정 방법(예 : 양적 자료는 도구로 수집하는 데 비해 질적 자료는 하나의 상황을 관찰하여 수집함)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두 접근은 역사적으로 진화했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형식은 양적 접근이 지배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혼합 연구가 발달하였다. 이런 배경은 이 책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용어의 정의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사회적 또는 인간적 문제 때문에 고려하게 되는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접근이다. 연구 과정은 질문의 생성과 절차, 연구참여자의 상황에서 자료 수집, 특정 주제에서 보편적 주제까지 자료의 귀납적 분석, 자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거친다. 최종 보고서는 융통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탐구 형태를 선호하는 연구자는 귀납적 양식, 개별적 의미에 초점 두기, 복잡한 상황의 묘사를 중요시하는 연구를 살펴보는 방법을 지지한다.
- 양적 연구는 변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 이론을 검증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변인은 대체로 검사도구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량적 자료가 통계적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최종 작성된 보고서는 서론, 문헌과 이론, 방법, 결과, 논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구조를 갖고 있다. 질적 연구처럼 이러한 탐구 형태를 선호하는 연구자는 편견을 경계하면서 연역적으로 검증 이론에 관해 가정하고, 대안적 설명을 통제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반복할 수 있다.
- 혼합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두 가지 형식의 자료를 통합하며, 철학적 가정과 이론적 틀을 포함하는 다른 설계를 이용하여 탐구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 탐구 형식의 핵심 가정은 독자적 접근보다는 연구문제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결합이다.

이러한 정의는 각각의 연구방법에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명확해지도록 정의의 일부를 논의할 것이다.

## 연구접근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

각 정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연구에 대한 접근이 철학적 가정은 물론 별개의 방법이나 절차를 지닌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연구접근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나 연구계획서로서 철학, 연구설계, 특정한 방법이 교차되어 이루어진다. 필자가 이들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고 이용한 틀은 그림 1.1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연구를 계획할 때 연구자는 연구에 이용할 철학적인 세계관 가정, 이러한 **세계관**과 연관된 연구설계, 접근을 실천할 구체적인 연구절차나 방법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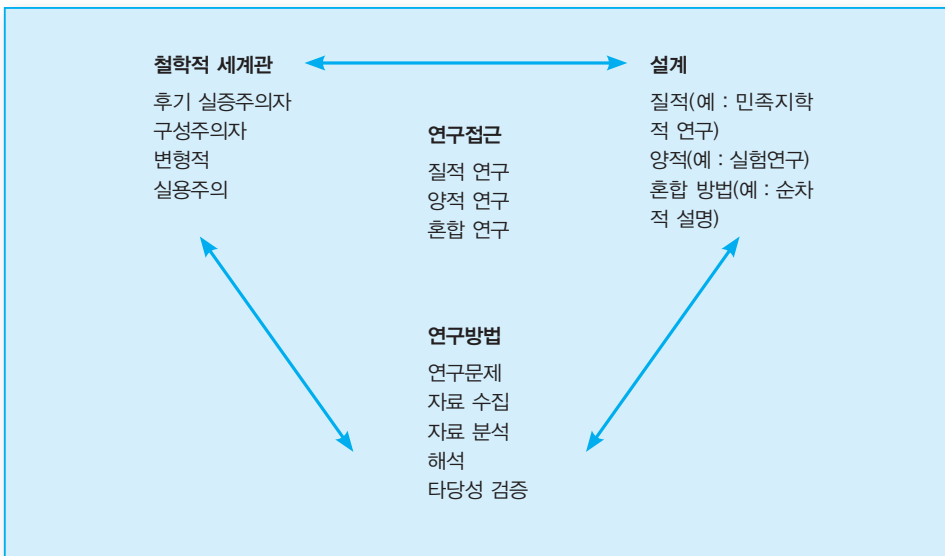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를 위한 틀 : 철학적 세계관, 설계, 연구방법의 상호 연관성

##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관념들은 대부분 연구 안에 감춰져 있지만(Slifer & Williams, 1995) 여전히 연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연구 제안이나 계획을 준비 중인 자들이 지지하는 보다 큰 철학적 관념을 명백히 밝힐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그들이 어쩌서 자신의 연구를 위해 질적 접근, 양적 접근, 혼합 접근을 채택했는지 설명이 될 것이다. 세계관에 관해 서술할 때 연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다루는 절을 포함할 수 있다.

- 연구에서 제안하는 철학적 세계관
- 그 세계관의 기본적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
- 그 세계관이 연구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을 형성하는 방법

필자는 세계관이란 용어를 “행위를 이끄는 일련의 기본적인 신념”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Guba, 1990, p. 17). 다른 이들은 이를 패러다임(Lincoln, Lynham, & Guba, 2011; Mertens, 2010), 인식론과 존재론(Crotty, 1998), 혹은 광범위하게 인지된 연구방법론(Neuman, 2009)으로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세계관을 연구자가 갖고 있는 연구의 특성과 세계에 관한 일반적인 철학적 방침으로 본다. 세계관은 훈련방침, 학생의 조언자와 멘토의 성향, 과거 연구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이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개인 신념의 유형에 따라 양적 접근, 질적 접근, 혼합 접근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연구자가 탐구할 때 어떤 세계관 또는 신념을 갖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문헌에서 폭넓게 논의된 네 가지의 세계관, 즉 후기 실증주의, 구성주의, 변형적, **실용주의**를 조명할 것이다. 각 입장의 주요 요소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 후기 실증주의자의 세계관

후기 실증주의자의 가정은 연구의 전통적 형태로 표현되어 왔고, 이 가정은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에 더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세계관은 때때로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 또는 과학연구(science research)하기라고 부른다. 또한 실

표 1.1 네 가지 세계관

<b>후기 실증주의</b>	<b>구성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li> <li>• 환원주의</li> <li>• 경험적 관찰과 측정</li> <li>• 이론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li> <li>•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미 구성</li> <li>• 사회적·역사적인 구성</li> <li>• 이론 생성</li> </ul>
<b>변형적</b>	<b>실용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li> <li>• 권한 부여와 이슈 지향적</li> <li>• 협력적</li> <li>• 변화 지향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의 결과</li> <li>• 문제 중심적</li> <li>• 다원적</li> <li>• 현실세계의 실천 지향적</li> </ul>

증주의자/후기 실증주의자 연구, 경험과학, 후기 실증주의라고도 부른다. 마지막 용어가 후기 실증주의로 불리는 이유는 실증주의 이후의 사고를 나타내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변화를 보이며(Phillips & Burbules, 2000),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연구할 때 우리의 지식 주장에 대하여 ‘실증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후기 실증주의자의 전통은 Comte, Mill, Durkheim, Newton, Locke(Smith, 1983)와 같은 19세기의 작가에서 시작되었고, Phillips와 Burbules(2000)와 같은 최신 저자들로 이어졌다.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대개) 어떤 효과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결정론적인 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후기 실증주의자가 연구하는 문제는 실험에서 검증되는 문제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확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가설과 연구문제를 구성하는 변인과 같이 검증 가능한, 작고 이산적인 일련의 아이디어로 환원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이다. 후기 실증주의자의 시각을 통해 개발되는 지식은 ‘세상의 저쪽’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재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찰과 측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에 관한 수량적 측정을 개발하고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후기 실증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후기 실증주의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론을 검증하고 정당화하거나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기 실증주의자가 받아들이는 연구접근으로서 과학적인 방법에서는 연구자는 이론으로 시작하고, 그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고 추가 검사를 한다.

Phillips와 Burbules(2000)의 저서에서 이러한 입장의 주요한 가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1. 지식이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그리고 반근본적이기도 하다). 즉 절대적 진리란 결코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에서 확립된 증거는 항상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는 가설을 증명할 수 없고, 대신에 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뿐이다.
2. 연구는 주장을 만든 다음, 보다 강력한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 주장의 일부를 정교하게 하거나 버리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양적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3. 자료, 증거, 합리적인 고려를 통해 지식을 만든다. 실제로 연구자는 연구자의 관찰이나 연구참여자에 의해 측정된 검사도구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4. 연구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기술하거나 관련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참인 명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변인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고, 이 관계에 대한 연구질문이나 가설을 설정한다.
5. 객관성은 양질의 탐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며, 연구자는 편파적이지 않도록 연구방법과 결론을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 구성주의자의 세계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세계관을 갖는다. 구성주의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때로는 해석주의와 결합되는)가 바로 그러한 관점이며, 전형적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은 Mannheim, Berger와 Luekmann(1967)의 실제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Lincoln과 Guba(1985)의 *Naturalistic Inquiry*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최근의 연구자로는 특히 Lincoln

과 동료들(2011), Mertens(2010), Crotty(1998)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는 개인은 자신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인 의미를 발전시키는데, 그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는 다양하고 다중적이어서, 연구자로 하여금 협소한 의미로 범주화나 개념화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게 이끈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관점에 상당히 의존한다. 연구문제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연구참여자는 상황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의미는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토론이나 상호작용 속에 스며 있는 것을 말한다. 연구문제가 개방적일수록 연구자는 사람들의 삶에서 말하고 행하는 내용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된다. 보통 이것의 주관적 의미는 사회적·역사적으로 협의된다. 즉 의미가 단순히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해 그리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구성주의자 연구자들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주로 다룬다. 또한 그들은 연구참여자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자는 자신의 배경이 해석을 구체화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과 개인적·문화적·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해석이 나온다는 사실을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또는 해석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후기 실증주의에서와 같이) 이론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론이나 의미의 패턴을 귀납적으로 개발하거나 생성한다.

예를 들어, Crotty(1998)는 구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언급하였다.

1. 인간은 자신이 해석하고 있는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질적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연구참여자가 그들의 견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2. 인간은 세계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사적·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한다. 우리는 모두 문화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질

적 연구자는 상황에 뛰어들거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질적 연구자는 발견한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배경에 의해 구성된다.

3. 의미의 기본적 생성은 항상 사회적이고, 인간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의 과정은 대부분 귀납적이고,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 변형적 세계관

어떤 연구자는 변형적 접근의 철학적 가정을 지지한다. 이 입장은 구조적인 법칙과 이론에 의한 후기 실증주의적 가정이 사회 내에서 소외된 개인에 맞지 않으며 권력, 사회적 정의, 차별, 억압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학자에 의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현하였다. 이 세계관의 특징에 대한 일관된 문헌은 없지만 비판적 이론가, 참여행동 연구자, 마르크스주의자, 페미니스트, 소수 인종·민족 집단, 장애인, 토착민과 탈식민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사회동성애자 연구자 집단들이 이 세계관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변형적 학자로는 Marx, Adorno, Marcuse, Habermas, Freire가 알려져 있다(Neuman, 2009). 최근에는 Fay(1987), Heron과 Reason(1997), Kemmis와 Wilkinson(1998), Kemmis와 McTaggart(2000), Mertens(2009, 2010)의 연구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 세계관의 연구자는 구성주의자 관점이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의제를 충분히 옹호하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변형적 세계관**은 연구가 정치와 어떤 수준에서건 사회적 억압과 직면한 정치적 변화 의제와 맞물릴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Mertens, 2010). 그래서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생애, 개인이 일하는 기관, 연구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위한 행동 의제를 포함한다. 나아가 권력, 불평등, 억압, 지배, 소외와 같은 일상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종종 연구의 초점이 되는 문제를 이러한 이슈 중 하나로 시작한다. 이 연구는 또한 연구결과로부터 연구참여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협동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참여자는 연구질문을 설계하